む氏의新政策

佛國『政治狀態

厄機에 分救出 智スシー酸者 乳脳 教政治 アック

The Korca Daily News.

Scoul, Korea, Thursday, Iun. 24th, 1926. THE ENGLISH LANGUAGE By Chao Yung-hsiang

He may not be prepared to voice his opinion, but the fact was very evident at the Gotemba meeting. It is pronunciation not of the literary training but of incorrect instruction in the first principle, to talk in a loud tone, all the while keeping the voice on the upward trend. The man who speaks English words in bleats and pauses is not an elocutionist, and consequently not fitted to teach the English language even to English children.

Some of the students spoke bad cockney without the drawl, which is worse because they cannot make themselves understood to any but an experienced teacher and to their friends

who speak in the same manner. Why the quaintly queer intonation of the Oxfordian and Londoner or the strenucus lurr of the Ycrkshireman should be considered worse English that the nasal twang of the United States may be left to those to whom it immediately concerns. Perhaps it is a fine thing that the different countries and peoples therein possess an accent of their own by which its people may recognise each other, no matter where they meet. To speak with an Australian, an American, or a combination of the varicus accents is certainly nothing to te ashamed of.

の軍事

奇不得負設部十 기**多** 計の事者日 로曾コ 少項幽本

各地新酶特電 ○安東二十二日發 ○安東二十二日發 ○日最高九七圓短低五七圓 ○日最高九七圓短低五七圓 ○四東二十二日發 ○四東二十二日發

石圓

|| 名の異常!|

百四二十百千

扇内

所所日

O K

行者的於い正

份者十四名

인지도 모르고 한모양

한주군동면운홍(安州郡東南 한 신작로에서 되어실어던집 일어지자 속력을바여 가지 일어지자 속력을바여 가지 진행하면서 되를보라 보다 콘물에부터워 미취약가를봇 그냥임어죗승이모 엘리도

再修에열門春子 (이심삼일조간참조)

하하아 사방으로 결식을하나를 만든듯하아살수엄다하며 먼두 눈에서는 눈물이주룩주룩 흘러보는사람이도 하아금 괴명명정

海蔘威에

女子巡查

문하다 이 배 지 아무것도이다 아 오지그는 무려움과 무성용을 것기계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변화 보통이 가장 지의면에 가아 보는 하는 한당을이 아니면 일본에도 사람이 가지 보통이 있다. 부부의 관한 하는 한당을이 아니면 일종간 조용생활과 노예생활에 지나지만 함께는 하불며 사랑도입는데다가

자난이십일 오전멸시장 보보표 이며 시상과인정을 원망하나라이어며 시상과인정을 제속하여로 그리아를 다리 즉자 기는 충남례산관례산면 관 의 보험을 당감자도(金嚴道)(를) 인바 지금이로부런 이십오면관 이자 기본취임 등 1 에 이십오면관

가 三金順天과 可憐む盲人金載道

상에서 이러날수입다는데 기는 대일구차한 가당에서의 바다 주의하다 들는이라더라(마산) 娼妓厭世斷髮 주의하여

古町の丘田をかけた島叶中田ナマス

너얼먹으 얼은 해산8r된모증국 인(禮山驛前某中國人)에게수앙

마산부 만당(屬明)에 잇는창기 조모(曹) 가서 머리를 가지 날이십일밤에 가서 머리를 가게 달라는것을 가서 머리를 가게 달라는것을 가 다는데 그리를 가 자살의 팀려가 있다 하야 건속하였다가 중시작 자살의 팀러가 있다 하다는데 그리를 안다가 죽시 바면하다는 건지를 안내 무실하고 작고 붓기만하지 그가리한듯 하다더라 다 한 지고 가리한듯 하다더라 다 안 나는건사로 하다 주인 하다 그가리한듯 하다더라 다 안 나는건사로 하다 되고 누기만 하지 그가리한듯 하다더라 다 안 나는건사로 열게 걸었다.

以山の서に 因山活寫

량지국卒원으로 平分の早時対場

强姦コア

が日へ

되었으 약간남인 가산증불 하야가지고 동년 유사월 된장남김구현만다린채부 된장남김구현만다린채부

고 도명해산위(海寨城)에서는최근 어일이라 되자순사를 채용하였 에서는최근 이고 권종을휴대하후 시가디를 간찰하고 잇다하며 일반이 이물

지난십구일으후아홉시부리울산 청년회관에서 두번에 난효어시 대조선(時代朝鮮)량지국폭원의 로국장의식원자광장의활동사진의 하지국폭원의 개는무료로 배관케하여 일반배에 가는무료로 배관케하여 일반배

지지 郡縣吃頭松陽里李宝高) 시상점 제 도점이드리가서 관장모음말 기지고입산에 올라는 가서 계란까지 되어속을 드로히 가서 계를파레하여 현금산십억 기압하다 거짓으도 당하고 다 그리는 다 가지고 도로 문제를 가 다 다 그 원들 내육가지고 도로 문제를 가 다 더라 (도권)

지 증정상자를바였다는데 이급 를집한 소관서에서는 즉시리 용의 부하십말명을 검거하고 이십일밤에 첫던유식덤에서 대 인치인은 발다품에서 이러난것 대한 보다품에서 이러난것

2吉野町) 登る早の町の仏

聯合公議會

夏期修養會

하 조선에수교 련합공의회 하기수 양희(朝鮮耶縣敦聯合公議會 夏 개시하리라는바피목인다음과 기르며 장소는 시외면회권문학 하는 인원에게는 시외면회권문학 이 (五澤引努)을 배부하고 식비는바이 일주일간에 오원을 박는다는바 기우리 사이를 바보하고 식비는

지원심판진에 복막키로하였다라

朝鮮内各地의

fo성복심에서

하하고서복여

年에服役

大会의마즈中으로가장人氣暑平 中世栄實中學對平顯高音戰은 崇中軍党當計列光成高音量익인平 獨高音量配計立 別 中 7 結局四對 常 2 로大勝 8 陳 計 4 이로 커三日 間 4 直 計 6 中 で 三 人 氣 置 火 三 大 會 と 墓 当 다 入 「 下 臨 愛 電 】 3 鈴木 4 灰田村 9 山崎 5 柳川 1 細貝 7 寺崎 8失策 6 2 松本 露領館所有土地

포 김봉준(金縣春)의 장남령수(結 察)(三)는 이십십일오후 세시반 동하였다는데 원되어 그어머니 무히였다는데 원되어 그어머니 기엘래에쓰고 남었는 양잿물론 하부두두었는것을어린애가먹는

『被害本人

合

中(平分)

나오 列 む ち 면

A教會以科學、蔡弼近、越就▲社會、趙炯玉▲青年、金昶濟、 趙永 會、趙炯玉▲青年、金昶濟 漫永

生鮮中毒の豆

青年聯合幹部

성 실 된 아이가 말이 가 말이 되는 것이로 잘된 것이로 잘된 것이 되었을 다 어머니를 이 조심함을 입어되는 것이 되었을 다 가 있다면 하는 것이 되었을 다 가 있다면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이십시일에 해주로롱 현맹 발회식(海州勞働聯盟迎會式)이 해주청년회관에서밀리자 각디로부터 축모축면이 답지하여자 보건함 "일 누게되얏슬지음 3 경 兩氏不起訴

의한의국하주의회원 을따라 인갓병이발생당이로 열 산의 음식과 참자리들을다면하야감 전함에인것이 물론이어나와 최 一家族呻吟 なのコーシーとエー